2017 국가직 추가 채용 9급 국어(2017. 10. 21.) 총평 및 해설

남부 해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번호	내용	범위	번호	내용	범위
1	낱말의 이해	문법	11	조건 충족	비문학
2	띄어쓰기	문법	12	한글 맞춤법	문법
3	높임법의 이해	문법	13	낱말의 이해	문법
4	품사	문법	14	단어의 형성	문법
5	한자성어	한자	15	고쳐 쓰기	비문학
6	글의 진술방식	비문학	16	소설의 이해 <김승옥, 무진기행>	문학
7	시조의 이해	문학	17	글의 중심내용	비문학
8	용언의 활용	문법	18	접속어	비문학
9	일치, 불일치	비문학	19	시의 이해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문학
10	한자어	한자	20	고전 소설의 이해 <홍길동전>	문학

2. 분야별 분석

문법	비문학(언어예절 포함)	문학	어휘 및 한자
8(40%)	6(30%)	4(20%)	2(10%)
단답형 지식 문제 10(50%)		박스형 지문 및 이해 10(50%)	

3. 전체 총평

1. '2017 국가직 추가 채용 공무원 9급' 국어 문제는 최근 공무원 기초에 맞추어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법 문제 가운데 어휘를 묻는 문제 2개를 감안한다면 문법·비문학·문학·어휘 및 한자의 4영역이 30:30:20:20의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고난도의 문제가 없었던 만큼 시험장에서 실수를 얼마만큼 최소화했는지가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이 된다.
3. 어휘와 연계한 낱말의 문제를 포함하여 문법의 문제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문법의 실수는 이번 시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평상시 정확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 시험이다. 비문학 역시 비교적 답이 명백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평상시 문제 풀이를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시험 장면에서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4.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문학과 어휘의 문제가 고득점에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수업 시간에 이미 다룬 시(현대 시, 시조)와 소설(현대문학, 고전문학) 모두 동일 지문이 나와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한자성어와 한자어를 열심히 암기하고 유추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
5.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풀이 및 여러 특강을 통해 다룬 동일한 문제와 내용이 출제되었다. 정말 수업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그러하듯이 또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더욱 진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의 적중 표시는 시험 전 5주 완성으로 구성되었던 문제 풀이 수업에서만 찾아 구성하였다.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들께 마음을 모두 모아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응원한다.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13번, 5회 17번

- ①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정답: ④

[해설]

지연하기 → '취소하기'	'지연(遲延)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u>늦추다</u> .'란 의미를 가진 단어다. 문맥상 '비가 올 때는 순회공연을 안 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취소(取消)하기' 정도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미루기', 혹은 '연기하기'를 넣어도 무방하나 그러려면 해당되는 날짜가 있어야 한다. ※ 취소하다[동사]: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다.
연장되었다 → '연기되었다'	'연장(延長)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본래보다 길게 <u>늘어나다</u> .'는 뜻이다. 문맥상 날짜가 바뀐 상황이므로 '연장되다'보다는 '연기(延期)되었다'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날짜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변경(變更)되다'로 수정해도 의미상 무방하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보다 미뤄진 상황이므로 '연기되다'가 더 자연스럽다. ※ 연기되다[동사]: 정해진 기한이 뒤로 물러져서 늦어지다. 변경되다[동사]: 다르게 바뀌어 새롭게 고쳐지다.

[오답 정리]

① '금방(今方)'과 '방금(方今)'은 의미가 동일하며, 모두 가까운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①의 '금방'과 '방금'의 사용은 적절하다.

※ 다만 실제 구어체에서는 주로 '금방'은 '조금 후에'(금방 올 거예요.)로, '방금'은 '조금 전의'의 의미(방금 갔어요.)로 주로 쓰인다.

금방(今方)	[부사]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예 금방 구워 낸 빵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예 금방 달려들기라도 할 듯하다.
방금(方今)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 예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 단, '금방'은 부사로만 쓰이지만, '방금'은 부사 외에 명사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첫 번째 문장은 '혈통'이란 의미이므로 '근본(根本)'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심'이란 의미이므로 '근간(根幹)'의 사용이 적절하다.

근본(根本)	[명사] 1. 초목의 뿌리
--------	-------------------

	2.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예 근본 원칙/경제 불황이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3.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예 그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다./근본 있는 집안.
근간(根幹)	[명사] 1.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호두나무 근간을 내 손으로 베었다. 2.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예 국가의 근간 사업/근간을 이루다

③ 첫 번째 문장은 ‘나쁜 길로 빠진’이란 의미이므로 ‘타락(墮落)한’의, 두 번째 문장은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진’이란 의미이므로 ‘몰락(沒落)한’의 사용이 적절하다.

타락(墮落)한	[동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 예 술과 여자로 일상을 보내는 그의 타락한 생활상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몰락(沒落)한	[동사] 1.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지다. 예 몰락한 귀족/집안이 몰락하다./정권이 몰락하다. 2.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지다. 예 제국이 몰락하다.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1번, 4회 8번 유형, 400제 띄어쓰기 13, 16번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정답: ③

[해설]

안√되어도 → 안되어도	‘되다’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맥상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해도’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안√되어도’가 아니라 ‘안되어도’로 써야 한다. ※ 안되다[동사]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 tip! ‘안되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sorry’의 의미이다.
-----------------	---

[오답 정리]

- ① · 물어도√보았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본용언이 ‘-아/어’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물어√보았다(O)/물어보았다(O)). 그러나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보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물어도√보았다’의 표기는 옳다.
- ② · 매일같이: ‘같이’는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명사 ‘매

일'과 붙여 쓴 표기는 옳다.

· 김V선생: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성과 호칭은 띄어 쓴다.

· 그만두다: 하나의 낱말(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④ · 지난주: '전주(前週)'의 뜻을 가진 '지난주'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할지: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하다'의 어간 '하-'와 붙여 쓴 표기는 옳다.

※ tip! '지'는 '시간의 경과'의 의미를 지닌 문장에서만 의존명사이다.

[보충] '부사+동사' 또는 '부사+형용사' 구성을 가진 합성어	
잘나다	<p>[형용사]</p> <p>1.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다. 예 저렇게 <u>잘난</u> 얼굴은 처음 본다.</p> <p>2. 똑똑하고 뛰어나다. 예 그는 지나치게 <u>잘나서</u> 오히려 탈이다.</p> <p>3. (반어적으로) 변변치 못하거나 대수롭지 아니하다. 예 너 <u>잘났다</u>.</p> <p>※ ㉠ ! 이 양말은 구멍이 <u>잘</u>난다.</p>
잘살다	<p>[동사] 부유하게 살다. 예 모두가 <u>잘사는</u> 부호의 딸들만 같아 보였다.</p> <p>※ ㉠ !</p> <p>그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싸우더니 지금은 결혼하여 <u>잘</u>산다.</p>
잘생기다	<p>[형용사]</p> <p>1. 사람의 얼굴이나 품채가 흰하여 훌륭하다. 예 그 사람은 이마가 <u>잘생겼다</u>.</p> <p>2. 물건의 모양이 미끈하여 보기에 좋다.</p> <p>예 인삼도 <u>잘생겨야</u> 좋은 값을 받는다.</p> <p>※ ㉠ ! 이 옷은 얼룩이 <u>잘</u>생긴다.</p>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7번, 400제 높임법 10, 11번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덕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정답: ④

[해설]

ㄷ과 ㄹ의 목적어는 각각 '아이들을'과 '할머니를'이다. ㄹ의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맞지만, ㄷ의 '아이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ㄷ과 ㄹ 모두 목적어(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ㄹ만 서술어 '모시고(모시다)'를 통해 목적어(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tip!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높임법’은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여쭙다)’의 용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시다’의 ‘-시’는 주체높임과 무관하므로 주의한다.

[오답 정리]

- ① ㄱ과 ㄴ의 주어는 각각 ‘할아버지께서’와 ‘선생님께서’이고 이에 대한 서술어에 ‘가셨습니다. 계십니다’와 같이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이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② ㄱ~ㄷ 모두 종결어미를 통해 듣는 이(청자)를 높이고 있다.
 ※ 종결어미가 사용된 문장, 즉 모든 문장에는 ‘상대높임법’이 사용된다. 다만 상대높임법에도 높임과 낮춤이 있어 격식체의 ‘합쇼체, 하오체’와 비격식체의 ‘해요체’는 청자를 높이는 높임의 표현이고, 격식체의 ‘하오체, 하계체’와 비격식체의 ‘해’체는 낮춤의 표현이다.
- ③ ㄴ은 ‘집’의 높임 어휘인 ‘댁’과 ‘있다’의 높임 어휘인 ‘계시다’를, ㄷ은 ‘데리다’의 높임 어휘인 ‘모시다’를 통해 각각 주어와 목적어를 높이고 있다.

[보충] 높임의 반영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판단	+	-	+
근거	① 주격 조사 ‘께서’ ② 선어말어미 ‘-시-’		종결 어미 ‘-습니다’ → 합쇼체(격식체, 높임)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판단	+	-	+
이유	① 주격 조사 ‘께서’ ② ‘집’의 높임 어휘 ‘댁’ ③ ‘있다’의 높임 어휘 ‘계시다’		종결 어미 ‘-습니다’ → 합쇼체(격식체, 높임)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판단	+	-	+
이유	선어말어미 ‘-시-’		① 높임의 대명사 ‘여러분’ ② 종결 어미 ‘-하십시오’ → 합쇼체(격식체, 높임)

ㄷ.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판단	-	+	+
이유		‘데리다’의 높임 어휘 ‘모시다’	종결어미 ‘-다’ → 해라체(격식체, 낮춤)

[보충] 높임법의 종류

종류	높임 대상	실현 방법
상대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춤	종결어미(를 지닌 모든 문장)
주체 높임	서술어의 주체(주어)	① 선어말어미 ‘-시-’ ② 주격조사 ‘께서’ ③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객체 높임	서술어의 객체(목적어, 부사어)	① 부사격조사 ‘께’

	②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	--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5회 18번, 400제 품사 16, 18, 20번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비교’에 접미사 ‘-적(的)’이 붙어 파생된 단어인 ‘비교적’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부사, 관형사, 명사로의 파생이 가능하다. ③의 ‘비교적’은 각각 후행하는 서술어 ‘편리하다’와 ‘낮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품사는 ‘부사’로 동일하다.

※ tip! 접미사 ‘-적(的)’이 붙은 낱말이 부사나 용언을 꾸미면 ‘부사’,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 조사를 취하면 ‘명사’이다.

비교적(比較的)	[부사]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 예 <u>비교적</u> 쉬운 문제.
	[관형사 · 명사]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예 <u>비교적</u> 고찰/ <u>비교적</u> 연구(관형사) <u>비교적인</u> 관점(명사).

[오답 정리]

① 첫 번째 문장의 ‘잘못’은 서술격조사(이다-입니다)와 결합했기 때문에 ‘명사’이고, 두 번째 ‘잘못’은 서술어 ‘적용하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이다.

※ tip! ‘잘못’은 조사를 취하면 ‘명사’, 부사나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잘못	[명사]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 예 <u>잘못</u> 을 고치다/ <u>잘못</u> 을 저지르다/ <u>잘못</u> 을 뉘우치다/모두 제 <u>잘못</u> 입니다.
	[부사] 1. 틀리거나 그릇되게 예 <u>잘못</u> 가르치다/소년은 길을 <u>잘못</u> 들어서 한참 헤맸다. 2. 적당하지 아니하게 예 소금을 <u>잘못</u> 넣어 음식 맛이 짜졌다.

② 첫 번째 문장의 ‘대로’는 관형어 ‘도착하는’ 뒤에 왔기 때문에 ‘의존 명사’이고, 두 번째 ‘대로’는 명사 ‘것’ 뒤에 왔기 때문에 ‘조사’이다.

※ tip! ‘대로, 만큼, 뿐’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의존명사’, 체언과 쓰이면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대로 ¹	[의존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예 본 <u>대로</u> /느낀 <u>대로</u> /그런 <u>대로</u> /들은 <u>대로</u> 이야기하다. 2.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예 집에 도착하는 <u>대로</u> 편지를 쓰다. 3.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예 튼나는 <u>대로</u> 찾아 보다./달라는 <u>대로</u> 다 주다.
대로 ¹⁰	[조사]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u>범대로</u>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너는 <u>너대로</u> 나는 <u>나대로</u> 상관 말고 살자.

④ 첫 번째 문장의 ‘이’는 체언 ‘사과’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이고, 두 번째 ‘이’는 조사 ‘보다’와 결합했기 때문에 ‘대명사’다.

※ tip! ‘이, 그, 저’가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조사를 취하면 ‘대명사’이다.

이	[대명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예 <u>이</u> 를 보라./ <u>이</u> 는 그자가 배신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예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학원 폭력이다. <u>이</u> 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관형사]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예 <u>이</u>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u>이</u> 아이가 네 아들이니?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예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u>이</u>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 tip! ‘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가 된다! 예 저 모자 쓴 <u>이</u> 가 누구지?
---	--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0번, 2회 1번, 400제 한자성어 5번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棼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정답: ②

[해설]

‘어로불변(魚 물고기 어, 魯 노둔할 로, 不 아닐 불, 辨 분별할 변)’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유의어] 목불식정(目不識丁), 일자무식(一字無識), 숙맥불변(菽麥不辨)

문맥상 ‘매점매석(買 살 때, 占 차지할 점, 賣 팔 때, 惜 아낄 석: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둠. 사재기.) 정도가 어울린다.

[오답 정리]

- ① 권토중래(捲 말 권, 土 흙 토, 重 거듭 중, 來 올 래)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상 그 쓰임이 적절하다.
- ③ 오불관연(� 나 오, 不 아닐 불, 關 빗장 관, 焉 어조사 언)은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상 그 쓰임이 적절하다. [유의어] 수수방관(袖手傍觀)
- ④ 양두구육(羊 양 양, 頭 머리 두, 狗 개 구, 肉 고기 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상 그 쓰임이 적절하다. [유의어] 구밀복검(口蜜腹劍), 소리장도(笑裏藏刀), 면중복배(面從腹背), 표리부동(表裏不同)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1번, 2회 11번, 400제 비문학 28번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쩍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욕심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에서 ‘역설’을 사용하였다. 또 난과 관련된 자신의 생활 체험을 ‘예시’로 들고 있다. 즉 역설과 예시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소유에서 벗어난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정리]

- ②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지 않았다. 또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는 글이다.
- ④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제시된 글에서는 단호한 어조를 사용한 부분과, 독자의 반성을 촉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작품 정리] 법정, <무소유>

갈래	경수필
성격	사색적, 체험적, 교훈적
제재	난과 관련된 생활 체험
주제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의 의미
특징	① 고백적인 말하기로 자신의 체험을 서술함. ②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진리를 전달함.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번, 2회 6번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나
이시랴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②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노고
- ③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 ④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흘으니 넷 물이 이실쑤야
人傑도 물과 긋야 가고 안이 오노미랴

정답: ③

[해설]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된 내용이 존재하는 시조는 ③이다. ③은 ‘동짓날의 긴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자를 수 있는 물리적 개념이자 어떤 곳에 보관할 수도 있고 펼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즉 화자는 혼자 있는 동짓날의 기나긴 시간을 잘라서 보관했다가, 임이 오시는 밤에 이어 붙여 임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 ①~④의 작자는 모두 ‘황진이’로 동일하다.

[작품 정리]

①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아아, 내가 한 일이야! 그리울 줄 몰랐단 말인가? / 있으랴 하였더라면 구투여 갖겠는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갈래 | 평시조, 서정시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연정가, 이별가
제재	이별과 그리움(보내고 그리는 정)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의 정한
특징	도치법 혹은 행간 걸침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표현함.

② 황진이, <靑山은 내 뜻이오~>

청산은 내 마음과 같고, 푸른 시냇물은 임의 정과 같다.
 시냇물이야 흘러가 버리지만, 청산이 변할 수야 있겠는가?
 (하지만) 흐르는 물도 청산에 대한 정은 못 잊어, 울면서 가는구나.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감상적, 상징적, 은유적, 연정가
제재	청산, 녹수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특징	불변성을 상징하는 청산과 가변성을 상징하는 녹수를 대조하여 표현함.

③ 황진이,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 고운 입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가
제재	연모의 정, 동짓달 기나긴 밤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 ②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였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려 냄.

④ 황진이, <山은 넷 山이로되~>

산은 옛날의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종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갈래	평시조, 서정시
성격	관조적, 애상적
제재	산, 물, 인걸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대조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20번, 4회 3번, 400제 활용 21, 23번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정답: ③

[해설]

③의 ‘휘두르다(휘두르다 - 휘두르고 - 휘두르지 - 휘둘러)’와 ‘자르다(자르다 - 자르고 - 자르지 - 잘라)’는 모음 어미가 연결될 경우 ‘르’ 형태로 바뀌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 불규칙 활용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어간이 바뀌는 유형(ㅅ, ㄷ, ㅂ, ㅍ, ㄹ 불규칙) ② 어미가 바뀌는 유형(-여, 러불규칙), ③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유형(ㅎ불규칙)이 있다.

[오답 정리]

① 형용사 ‘누르다(黃, ‘누렇다’의 의미)’는 어미가 교체되는 ‘러’ 불규칙 용언(누르다 - 누르고 - 누르지 - **누르러**)이고, ‘오르다(오르다 - 오르고 - 오르지 - **올라**)’는 어간이 교체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 c. f. 동사 ‘누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머리를) 누르다 - 누르니 - 누르지 - **눌러**

② ‘도착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 ‘이르다(이르다 - 이르고 - 이르지 - **이르러**)’는 어미가 교체되는 ‘러’ 불규칙 용언이고, ‘구르다(구르다 - 구르고 - 구르지 - **굴러**)’는 어간이 교체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 c. f. 형용사 ‘(시간이) 이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이르다 - 이르고 - 이르지 - **일러**

④ ‘부르다(부르다 - 부르고 - 부르지 - **불러**)’는 어간이 교체되는 ‘르’ 불규칙 용언이고, ‘푸르다(푸르다 - 푸르고 - 푸르지 - **푸르러**)’는 어미가 교체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어미 어간	-다	-니	-지	-기	-어
(색이) 누르-	누르다	누르니	누르지	누르기	누르러
오르-	오르다	오르니	오르지	오르기	올라
(장소에) 이르-	이르다	이르니	이르지	이르기	이르러
구르-	구르다	구르니	구르지	구르기	굴러
휘두르-	휘두르다	휘두르니	휘두르지	휘두르기	휘둘러
자르-	자르다	자르니	자르지	자르기	잘라
부르-	부르다	부르니	부르지	부르기	불러
푸르-	푸르다	푸르니	푸르지	푸르기	푸르러

[보충] 불규칙 활용의 유형

① 어간이 바뀌는 유형

‘ㅅ’ 불규칙	‘ㅅ’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이다. 예) 짓다 - 짓고 - 짓지 - 지어 - 지으니 - 지어서 - 지어라
‘ㄷ’ 불규칙	‘ㄷ’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로 바뀌는 용언이다. 예) (걸음을) 걷다 - 걷고 - 걷지 - 걸어서 - 걸으니 - 걸어서 - 걸어라
‘ㅂ’ 불규칙	‘ㅂ’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이 ‘오/우’로 바뀌는 용언이다. 예) (고기를) 굽다 - 굽고 - 굽지 - 구워 - 구우니 - 구워서
‘우’ 불규칙	‘우’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이다. 예) 푸다 - 푸고 - 푸고 - 퍼 - 푸니 - 퍼서 - 퍼라
‘르’ 불규칙	‘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르르’로 바뀌는 용언이다. 예) 흐르다 - 흐르고 - 흐르지 - 흘러 - 흐르니 - 흘러서

② 어미가 바뀌는 유형

‘여’ 불규칙	어간 ‘하-’가 어미 ‘-아/어’와 붙으면 어미가 ‘-여’로 바뀌는 용언이다.
---------	---

	예) 하다 - 하고 - 하지 - 하여(해) - 하니 - 하여서(해서) - 하여라(해라)
'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용언이다. 예) 푸르다 - 푸르고 - 푸르지 - 푸르러 - 푸르니 - 푸르러서
③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유형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모습이 바뀌는 용언이다. 예) 노랳다 - 노랳고 - 노랳지 - 노래 - 노래니 - 노래서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5번, 2회 12번, 4회 14번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정답: ④

[해설]

4문단의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에서 역사주의 비평가들이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개인사를 재구성하려고 했다고 했지,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했다고 하지 않았다.

※ 재구성(再構成):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

재평가(再評價): 다시 평가함.

[오답 정리]

- ① 1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2문단의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8번, 5회 15번, 400제 한자어 1, 3, 10번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
②	論議	論制	論遽	論搏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

정답: ①

[해설]

㉠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형태인 ‘논의’는 ‘論議(논할 논, 의논할 의)’로 표기한다.

※ 논의(論議):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의미하는 ‘논거’는 ‘論據(논할 논, 근거 거)’로 표기한다.

※ 논거(論據):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 상대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논박’은 ‘論駁(논할 논, 논박할 박)’으로 표기한다.

※ 논박(論駁):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토론의 주제를 의미하는 ‘논제’는 ‘論題(논할 논, 제목 제)’로 표기한다.

※ 논제(論題):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오답 정리]

㉠ ‘論意(논할 논, 뜻 의)’는 ‘논하는 말’이나 ‘글의 뜻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단어다.

㉡ 制(만들/제압할 제), 志(뜻 지)

論旨(논할 논, 뜻 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 遽(급히 거)

論難(논할 논, 어려울 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

㉣ 搏(두드릴 박)

論述(논할 논, 지을 술):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또는 그런 서술

※ 論制(논제), 論遽(논거), 論搏(논박)은 시험 출제를 위해 만든 말이다.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400제 문학 13번, 15번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알아 갑니다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④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정답: ③

[해설]

- ‘양보’라는 공중도덕을 홍보하고 있다.
- ‘A에게 B하는 C’라는 어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양보’의 긍정적 효과인 ‘행복의 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표어는 ③이다.

[오답 정리]

- ① 대구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도,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지도 않았다. 다만 교통질서는 공중도덕과 관계된다.
- ② 행위의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비유하여 표현했다. 다만,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하고 있으며, ‘A를 B하는 C’라는 어구가 반복되어 대구가 나타난다.
- ④ 대구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도,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비유하여 표현하지도 않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공중도덕과 관련이 있다.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0제 한글맞춤법 3번, 9번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 ④

[해설]

※ tip! 주어진 조건은 ‘구개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구개음화는 ‘ㄷ, ㅌ’이 ‘형식형태소 ㅣ’ 모음을 만날 때 발음이 [지, 치]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시된 조항은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라고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즉 어간과 어미 또는 어근과 접사, 체언과 조사 등의 결합 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잔디'와 '버티다'는 한 형태소 내부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조항의 예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잔지, 버치다]로 읽을 수 없다는 내용만 알아도 답을 찾기에 충분하다.

[오답 정리]

- ① '해돋-'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접미사 '-이'가 와서, [해도지]로 발음한다. 그러나 표기는 형태를 밝힌(표의주의) '해돋이'이다. '같이' 역시 '같-'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접미사 '-이'가 와서 [가치]로 발음한다. 그러나 표기는 형태를 밝힌(표의주의) '같이'이다.
- ② 소리대로(표음주의)가 아니라, 형태(원형)를 밝혀 적은 경우이므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표의주의' 원리를 따른 것이 맞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의 실질적 형태소에 '조사, 접사, 어미 등'과 같은 형식적 형태소가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종속적 관계를 가진 단어의 예

어근+접사	말이[마지], 같이[가치], 달히다[다치다] 등
체언+조사	발이랑[바치랑], 끝이[꼬치] 등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3번, 4회 17번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채	<p>'채'는 '미처, 아직도'란 의미를 가진 부사로 그 쓰임이 옳다.</p> <p>※ 채[부사]</p> <p>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p> <p>예) 말이 <u>채</u>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열다섯이 <u>채</u> 될까 말까 한 소녀였다.</p> <p>✓ 동음이의어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채'도 있다. 예) 옷을 입은 <u>채</u>로 물에 들어간다./노루를 산 <u>채</u>로 잡았다.</p>
체	<p>'체'는 '척'이란 의미를 가진 의존 명사로 그 쓰임이 옳다.</p> <p>※ 체[의존 명사]</p> <p>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 척</p>

예 보고도 못 본 체(척) 단전을 부리다/모르는 체(척)를 하며 고개를 돌리다.

[오답 정리]

② ‘한참’과 ‘한창’의 순서가 바뀌었다.

한참 → 한창	문맥상 벼가 가장 무르익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므로 ‘한창’을 써야 한다. ※ 한창[부사, 명사]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 예 벼가 <u>한창</u> 무성하게 자란다.(부사)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u>한창</u> 이다.(명사)
한창 → 한참	문맥상 ‘한동안’의 의미이므로 ‘한참’을 써야 한다. ※ 한참[부사, 명사]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예 <u>한참</u> 난투극이 벌어졌다.(부사) 그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u>한참</u> 이나 둘러보았다./담장을 따라 <u>한참</u> 을 걸어가니 기와집이 나왔다.(명사)

③ ‘두껍다’와 ‘두텁다’의 순서가 바뀌었다.

두껍다 → 두텁다	문맥상 친분이 굳고 깊다는 의미이므로 ‘두텁다’를 써야 한다. ※ 두텁다[형용사]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예 두터운 은혜/신앙이 <u>두텁다</u> /친분이 <u>두텁다</u> /정이 <u>두텁다</u> /두터운 교분을 쌓다.
두텁다 → 두껍다	문맥상 야구 선수층이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두껍다’를 써야 한다. ※ 두껍다[형용사] 1.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예 두꺼운 이불/두꺼운 책/두꺼운 입술 2.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예 고객층이 <u>두껍다</u> /지지층이 <u>두껍다</u> . 3. 어둠이나 안개, 그늘 따위가 짙다. 예 두꺼운 그늘/안개가 <u>두껍게</u> 깔렸다./어둠이 대지 위에 <u>두껍게</u> 깔려 있었다.

④ ‘벗겨지다’와 ‘벗어지다’의 순서가 바뀌었다.

※ tip! 머리카락의 경우, ‘벗겨지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 ‘벗어지다’는 ‘스스로’의 의미를 포함한다.

벗겨졌다 → 벗어졌다	문맥상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의미이므로 ‘벗어지다’를 써야 한다. ※ 벗어지다[동사] 1.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간다. 예 신발이 커서 자꾸 <u>벗어진다</u> /소반의 칠이 <u>벗어져</u> 보기가 흉하다. 2. 누명이나 죄 따위가 없어지다. 예 누명이 <u>벗어져</u> 다행이다. 3.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 <u>벗어진</u> 이마/머리가 <u>벗어지다</u> .
벗어지지 → 벗겨지지	바나나를 덮은 껍질이 손에 의해 떼어진다는 의미이므로 ‘벗겨지다’를 써야 한다. ※ 벗겨지다[동사] 1.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예 신발이 꼭 끼어 잘 <u>벗겨지지</u> 않는다./바람이 불어 모자가 <u>벗겨졌다</u> . 2.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 예 죽어서야 자식들에 의해 오명이 <u>벗겨졌다</u> .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3회 10번, 5회 2번, 400제 9번, 15번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정답: ②

[해설]

‘회-덮밥’이 최종 관계가 ‘회+덮밥’의 구성으로 합성어인 것은 맞다. 그러나 ‘덮밥’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다. 즉 ‘덮밥’은 ‘덮다’의 어간 ‘덮-’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어근 ‘밥’과 결합한 형태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정리]

- ① ‘바다(바다)’와 ‘맑다(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다.
※ tip! 용언의 경우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를 판별할 때, 어미를 제외하고 판별한다.
- ③ ‘결눈-질’은 명사 ‘결’과 명사 ‘눈’의 합성어인 ‘결눈’에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질’이 결합된 파생어다.
- ④ ‘웃-음’은 ‘웃다’의 어근 ‘웃-’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다.

[보충] 단어의 형성			
종류		구성	예
단일어		하나의 어근	발, 도시락, 어머니, 하늘, 가다
복합어	파생어	접두파생어	돌배(돌-+배), 들짐승(들-+짐승)
		접미파생어	먹이(먹--+이), 깨끗이(깨끗--+이)
	합성어	어근+어근	손발(손+발), 돌다리(돌+다리)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17번, 4회 18번, 400제 고쳐쓰기 9번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글은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것이다. ㉠은 뒤에 제시된 ‘이러한 태도’와의 관계가 긴밀한 문장(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태도)으로 삭제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삭제하게 되면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태도’라는 모호한 의미관계가 연결되어 글이 자연스럽게 않게 된다. 따라서 ㉠의 문장을 문단의 통일성을 근거로 삭제할 수는 없다.

[오답 정리]

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으로, 두 문장은 ‘역접’ 관계이다. 따라서 ‘순접’의 ‘그리고’ 대신 ‘역접’의 ‘그러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번역 투 표현이므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하여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④ 전체 문장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므로 이에 맞춰 ㉠을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 tip! ‘명사’는 ‘명사’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4회 13, 15번, 400제 문학 31번 지문 완벽 적중.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뺨에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정답: ④

[해설]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것이였다, 같았다, 없었다, 놓았다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시된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나가 나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술함)으로 모든 사건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정리]

- ①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안개는 ~ 여귀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등의 부분에서 소재인 ‘안개’를 비유적(직유)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무진이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뒷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③ 작품 속 ‘나’가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다.

[작품 정리] 김승옥, <무진 기행>	
갈래	단편 소설
성격	회고적, 독백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
특징	①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강함. ② ‘나’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2회 12번, 4회 14번, 400제 비문학 중심 내용 1번, 16번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정답: ②

[해설]

제시된 글은 ‘기억, 생각, 상상, 표현’에 ‘책 읽기’가 매우 중요하며, 다만 이러한 책 읽기에는 반드시 ‘에너지, 훈련, 정신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책을 읽어야 한다.’와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가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오답 정리]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은 ‘책 읽기’의 장점 중 하나일 뿐이지 중심 내용은 아니다.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을 언급한 바는 없으며 글의 중심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

④ 책 읽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든다(에너지, 훈련, 정신 습관)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중심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중심 내용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4회 9번, 400제 접속어 넣기 67, 69번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①	즉	가령	요컨대
②	가령	한편	역시
③	이르테면	역시	결국
④	다시 말해	만약	그런데

정답: ①

[해설]

㉠: 앞 문장에서 언급한 '역사의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에는 '즉(①)', '다시 말해(④)'가 어울린다.

㉡: 앞 내용을 예를 들어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는 '가령(①)', '만약(④)'이 어울린다.

㉢: 앞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는 '요컨대(①)', '결국(③)'이 어울린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이다.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4회 15번, 5회 20번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
 저것 봐, 저것 봐, /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정답: ②

[해설]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는 ‘첫사랑의 기쁨’을 의미하는 ‘산골 물소리’뿐이다. 따라서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시에서의 반복은 특정 어미(~것네)와, ‘저것 봐, 저것 봐’ 등에서 나타난다.

[오답 정리]

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란 시구에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청각화, 눈에 보이는 ‘강’을 ‘울음 (소리)’으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공감각적 이미지인 것에는 학자 모두가 동의하는 반면, ‘울음(청각)’을 ‘타다(시각화)’로 표현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③ ‘물’과 ‘불’이란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 물: 눈물, 가을 강, 산골 물소리, 울음, 바다

불: 가을 햇벌,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 해질녘 울음이 타는(저녁 노을)

※ 제시된 시는 1연의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서러움(제삿날)으로부터 2연의 황혼 녘의 풍경에서 느끼는 애상감으로 감정이 확대되고, 3연에서 인생의 유한성과 한(恨)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물과 불’이라는 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그 주제인 ‘한의 심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④ 전통적 어조와 사투리(나고나, 보것네 등)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다.

[작품 정리]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전통적
시점	가을 강
주제	인생의 유한성과 한(恨)
특징	①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가 조화를 이룸.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주제를 심화함.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추경 대비 모의고사 1회 13번, 5회 6번 400제 문학 13번

길동이 “형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무를 건너며 ‘비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문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부분을 볼 때,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정리]

- ①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문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등의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처럼 서술자가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 한다.
- ② 길동이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③ 동작 나무를 건너며 ‘비우(雨)’ 자를 써 총구에 물을 채워 못 쓰게 한 것과, 길동이 축지법을 쓴 내용을 통해 길동의 남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정리] 허균, <홍길동전>	
갈래	국문 소설, 사회 소설, 영웅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영웅적, 전기적(傳奇的)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적서 차별
특징	모순된 사회 제도의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의의	①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함. ②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드러나며 전기적 요소가 강함.